

# 세찬 바람 속 기약 없는 하역 대기 시간도 헝클어진다



남극 세종과학기지 에 머무는 월동대에게 여름은 하역의 계절이다. 1951에 이르는 유류와 정기 보급품 하역 개시 명령이 떨어지면 한밤중이라도 부두에 불이 켜지고 대원들은 모두 바람 부는 바다로 나간다.

**인나의 남극통신**  
〈2〉 여름은 하역의 계절

아름다움을 말하기 전에 생활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다. 남극에 있다고 하면 대부분 '거기 출장아. 몇 도나 돼?' 이렇게 묻지만 이런 곳을 잘 아는 사람은 '바람은 얼마나 세게 부니?' 라고 묻는다. 15m/s부터 눈폭풍 불리자드로 분류한다. 바람의 세기가 20m/s를 넘어가면 건물 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진다.

기지 밖에서 하는 활동은 날씨의 영향을 전적으로 받는다. 좋지 않은 날씨는 근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휴식의 논거가 되기도 한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는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몇 개로 나뉜다. 기지에 머무는 사람 전체를 1로 보면 나가고 싶은 사람이 1/3, 나가야 하는 사람이 1/3, 나가지 싫은 사람이 1/3 쯤 되는 것 같다. 기간을 정하고 남극에 머무는 하계연구원들은 심혈 데이터를 일정량 이상 수집해야 하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다. 바람이 세게 불면 보트를 띄우기 힘들어 해상활동이 어렵고 안개가 짙으면 설상차 운행이 힘들기 때문에 육상활동이 어렵다. 그런 날에는 현관에 신발이 많아진다.

날씨가 좋아도 조디악을 띄우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보트정비실에서 크레인으로 조디악을 부두에 가지고 가야 한다. 조디악 1대 움직이려면 최소 운전사 1명, 보조사 2명이 필요하다. 해변에 접안이라

## 한밤중이라도 하역 개시 땀 바다로 나가 유류·보급품 내리고 연구시료 등 실어 대원들 고단함·스트레스 절절히 체험 집 밖 아이 걱정하듯 '엄마 말투'로 무전

## TV로 본 한국 상황은 현실감 없어 불잡히는 느낌 그리워 혈압 재기도

도 하려면 보조사들은 끌고 살피고 밀어야 한다.

남극의 여름은 1년 중 가장 따뜻한 기간이다. 남극을 방문한 하계연구원들은 펭귄과 스쿠아의 생태를 연구하고, 이끼의 광합성 연구, 눈 위에 사는 미생물 연구, 빙하와 암석과 토양의 연구 등을 한다. 기지 근처 바다와 산, 들판에서 마리안 소만, 포터소만, 백두봉, 아리랑봉, 가아봉 등에서 시료를 채집한다.

한국에 돌아간 연구원들은 이 시료가 품고 있는 축적된 시간을 펼쳐서 이것은 왜 이리저 저것은 왜 저런지를 분석한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연구도 한다. 열새우(Gondogeneia antarctica)와 바다나비(Limacina helicina antarctica)를 통해 큰 바다가 얼마나 산성화되었는지, 이대로 산성화가 계속되면 70년 후, 100년 후의 지구는 어떻게 될지를 예측한다.

월동대에게 남극의 여름은 하역이 이뤄지는 기간이다. 상자들이 어디선가 많이 와서 어디론가 많이 간다. 1951의 유류하역, 정기보급품 하역, 연구시료·폐기물 반출물 선적이 시작되면 백아 속에서 애써 확립해놓은 시간의 구획이 모조리 무너진다. 그래도 시작되면 차라리 괜찮다. 날씨가 안 좋아서 큰 배들이 피항하고, 하역을 앞둔 채 대기 중일 때엔 이후 일정을 재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크다.

한 밤 중이라도 하역 개시 연락이 오면 부두에 불이 켜진다. 대원들은 말없는 말을 하며 안전화를 신고 바람 부는 바다로 나간다. 파도가 높지 않으면 바지선과 조디악을 이용해 바다에 떠 있는 큰 배와 부두를 오가며 컨테이너를 싣거나 내린다. 하역작업 기간에 대원들은 아예 밥을 많이 먹거나 오히려 밥을 적게 먹는다. 그런 게 눈에 보일 땐 그 고단함과 스트레스가 절절히 체험됐다. 나는 모든 작업에 동일하게 참여하겠다고 말했지만 누군가는 통신실을 지켜야 했다. 통신실에 있다

가 조리장님과 함께 따뜻한 차를 끓여서 보온병에 담고 비스킷과 커피 면도 같이 부두에 내려갔다. 대원들은 하얀 입김을 뿜으며 잠깐의 휴식을 아이처럼 기뻐했다.

무전은 원래 짧고 객관적인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보내게 되어 있다. 하지만 어머, 어조 한글으로도 느낌이 확 달라진다. 특히 밖에서 듣는 안의 무전과 안에서 듣는 밖의 무전은 굉장히 다르다.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무전이 생뚱맞게 변한다. 바람이 세게 부는 바다, 위태로운 보트에서 듣는 무전은 듣는 사람에게 안도가 되어 주어야 한다. 대원들이 밖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수록 풍황, 풍속을 알려주는 것 뿐 아니라 집 밖의 아이를 걱정하는 것 같은 엄마의 말투로 무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무전 뿐 아니라 입에서 공기를 가르며 나가는 모든 말의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 1월에는 농담과 진담을 구분하는 연습을 했다. 알게 모르게 방해가 되지 않는지, 폐를 끼치지 않는지, 내가 갖는 그런 마음 자체가 상대방이 나를 불편해 하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는지를 살피려고 했다. 반농반진의 이야기 포화 속에서 정성을 똑바로 차리려고 했다.

어느 날은 의외로써 혈압을 잴다. 꽤 불잡히는 느낌이 그리웠다. 불잡히는 느낌이 그리웠다. 안정감이 필요했다. 내가 쓰는 언어가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절실했다. 아름다움과 죽음의 가까이에 있고 일터와 쉼터가 몇 미터 차이로 있다.

매일 밥 먹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사람 사이에서는 긴장과 탐색이 흐른다. '말뿐인 사람', '입만 살아가지고' 라는 말도 있지만 말은 큰 힘이 된다. 날씨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제어할 수 있는 것들에 신경 쓰고 싶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TV를 통해 본다. 현실감이 없다. 물건의 값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사건사고 소식이 익숙한 지평이 등장한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줄 알았는데 만나 이야기 같다.

밖에서 오래 있지 않는데도 그을렸다. 샤워를 마친 뒤 로션을 바르려고 다리에 손을 가져가면 흰 허벅지와 검게 변해가는 손의 대조가 느껴진다. 자외선차단제를 바르려고 얼굴에 손을 갖다 대면 흰 손과 검게 변해가는 얼굴의 대조가 느껴진다. 하루씩 살갗의 명도와 채도가 달라진다. 이것은 내가 남극에서의 시간, 하루를 느끼는 방식 중 하나이다. 남극을 나갈 때 내 허벅지가 남극의 자외선을 직접 받지 않은 실험대조군으로 잘 쓰일 것 같아 기대된다.

곧 뜨는 해가 지면 밤이다. 이런 밤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다. 밖은 춥고 안은 건조하다. 다행이도 모두에게 배개가 있다. 배개가 비탄민 몇 알보다 힘이 세다. 머리를 기대고 잠든 이의 몸에서 배개가 그날의 상한 마음과 피로를 빨아내 없애주기를 기도한다.

〈남극 세종과학기지 28차 월동대 생물연구원〉



백야와 어우러진 남극의 밤 산은 신비롭기만 하다.

### 2014년 12월 15일 ~ 2015년 3월 15일 제주도여행 폭탄세일

나는 제주여행을 (2박3일) ₩109,000원에 갈다~

선박(씨스타크루즈) 08:50 목포항출발 ₩109,000원 ~ 항공(아시아나) 15:40 광주공항출발 ₩189,000원 ~

<b>1일째</b>	선박 08:00 목포항집결 13:30 제주항도착직원미팅 항공 14:30 광주공항집결 16:20 제주공항도착직원미팅	수목원테마파크-아이스뮤지엄-트릭아트 HOTEL : 일반호텔(4~6인실)	중식 : 자유식 석식 : 호텔식
<b>2일째</b>	조식후-아침이 이쁜술일바다~외돌개 올레6,7코스트래킹 석부적테마농원-감귤따가체험-중문포구~별내천천양대, 천연난대림지대 중식후-카멜리아 힐-겨울의꽃 동백동산	서커스월드or코끼리코스(현지직방) HOTEL : 일반호텔(4~6인실)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b>3일째</b>	조식후-민공예물전시장~조랑말체험 제주성읍민속보전마을체험-중식-광치기해안-제주의오름을 한눈에볼수있는 드라이브수상산간도로 에코랜드-기차타고꽃자랑(자연원시림)술지대관광 - 농,수산물직매장 - 해녀촌	몽골리안 마상소(현지직방) 포항시항 : 울산(현지직방), 기사, 가이드팀 1인 ₩10,000원 * 제주출발-목포-광주도착20명이상선상버스 1인 ₩20,000원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토종돼지 불고기정식 석식 : 자유식

\* 참가인원 은 현지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상품은수중해기지입니다 \* 2인실 : 1박당 30,000원 추가 \* 산악회 별도모의

### 2015년 겨울방학특선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

기간 | 2015년 1월 10일(토) ~ 2월 1일(일)까지 무박2일, 1박2일  
장소 |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 축제장 회원님들모십니다

**무박2일**  
출발지 : 광주역 23:00 집결, 23:30 출발  
포함사항 : 전용버스, 입장료, 주차비, 조식, 중식(상등권), 여행자보험  
회비 : 주중 ₩89,000원 주말(금, 토, 일) ₩99,000원

**1박2일**  
1일째 ▶ 광주역 08:00 출발 - 남이섬 - 강원도 화천군 숙박  
2일째 ▶ 조식후 - 산천어 축제장 - 15:00 출발 - 광주  
포함사항 : 전용버스, 전일정 입장료, 숙박(호텔 4인실), 주차비, 식사(중식2회, 석식회, 조식회), 여행자 보험  
회비 : 주중 ₩169,000원 주말(금, 토, 일) ₩189,000원  
\* 20명이상출발가능 \*\* 예약담당문의 H.P : 010-3999-3226

황제 산악회 매월 첫째주 화요일 07:30, 광주역 08:00, 문예회관 08:10 출발합니다. 홍보의사 : 문병구 H.P 010-3999-3226

※ 문의처 | 해외, 국내, 섬투어 전문여행사 **황제관광여행사** 광주광역시 북구 효신로 5 ☎ 062)267-8580 ★ 담당자 | 문병구 H.P 010-3999-3226 FAX 062-267-8581